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Affecting College Adaptation among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Korea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백지숙**

Dept. of Child Studies, Mokpo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Baik, Jee-Sook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SES,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place of residence, type of program, Korean ability), self-esteem,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 colleg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Korea. 346 (196 male, 150 female)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in Jeollanam province completed the Self-Esteem,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While gender had no influence on the colleg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SES,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place of residence, type of program and Korean ability had significant influences. Also it was found that acculturative stress, type of program, self-esteem and place of residenc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academic adaptation whereas self-esteem, acculturative stress, type of program, and Korean ability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social adaptation. Related to emotional adaptation, acculturative stress, place of residence,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 variables. Finally, acculturative stress, type of program, self-esteem and place of residence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institutional attachment.

▲주요어(Key Words) : 자아존중감(self-esteem)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대학적응(college adaptation) 외국인 유학생(international college student)

I. 서론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의하면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등으로 한국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76,619명이다. 이중

68.5%의 학생이 학위과정에 있고, 26.5%는 어학연수 과정에 있는 학생이며, 84.7%의 학생이 자비로 유학을 온 학생이며, 15.3%는 정부나 대학의 초청 등으로 온 학생들이다. 아시아 유학생은 총 70,853명이며 이중 중국 학생들이 53,989명으로 76.2%, 몽골 3.2%, 베트남 2.9%, 일본 2.2% 순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학생의 증가는 2001년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에서 2009년 40,000명의 유학생 유치 목표를 초과달성한 수치이며,

* 본 논문은 2008학년도 목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 백지숙 (E-mail : jbaik@mokpo.ac.kr)

자비유학생도 2008년 대비 9,977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사회에 많이 유입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학생들은 외국 유학생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깊이 이해하게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노종희 등, 2003).

그러나 이렇게 늘어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개인들은 그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이승중, 1995). 이러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언어문제, 학비 및 기타 재정문제, 사회 적응문제, 고국에 대한 향수, 개인으로서의 역할갈등, 일상생활에서 일과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 또한 겪게 된다(Mallinckrodt & Leong, 1992).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 학생 신분으로 국내 대학교에 적응하고 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강의내용의 이해 부족, 연구 수행과 발표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공영태, 2005),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황혜연, 2007; Wang, 2004), 심리적 부적응(임수진·한규석, 2009) 등의 어려움을 대학생활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 내에서 학업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여, 대학 내에서의 대인관계나 과외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것이다(Baker & Siryk, 1984). 국내 대학생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일이 많아지며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함께 생리적, 사회적, 자아적 욕구가 고조되어 욕구좌절의 기회 또한 증가하며, 사회적 경험의 미숙으로 충분한 적응기술을 획득하지 못해 많은 대학적응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박은민, 2001).

이처럼 국내 대학생에게도 대학생활 적응은 중요하며 다른 시기의 적응과 구분되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반적인 대학적응 문제 이외에 낯선 문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문화적응이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과 가치가 다른 문화와 접한 결과로서 변화되는 것이다(Kagan & Cohen, 1990).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지속적인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개인의 행동과 내적 성격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생물학적, 문화적, 심리적 변화 및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의 결과 등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Berry et al., 1987). 이는

단순히 언어, 관습과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관해 알고 능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의 의미를 새로 배우고, 새로운 체계의 가치에 재적응하며 과거의 문화적 관습과 신념체계 및 행동을 포기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적인 행동의 일반적 현상을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한다(Williams & Berry, 199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주류 사회의 가치, 기준 등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긴장이나 스트레스원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스트레스원의 결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를 뜻한다(이인선, 2004; 노유성, 2004).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양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저조한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 소외감, 신체증세 그리고 정체성 혼란 등의 특정한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을 수반한다(Berry et al., 1987).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화적응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Prieto, 1995).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조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므로 모든 것이 긴장되고 적응 대상이 되며,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나임순, 2006). 특히 한국에 온 유학생들의 원활한 한국 사회 적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우리사회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타 문화를 한국사회 안에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고, 타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기회도 갖지 못했다(김규원, 1995). 따라서 아직은 우리사회에 외국인에 대한 배려나 조력체제가 불충분하며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이러한 문화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고(이승중, 1996), 이는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는 장연(2005)이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실태를 분석한 것이 있다. 장연의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향수병, 생활습관, 대인관계, 학업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혁심(2005)은 서울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그다지 많이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였다.

보다 최근 연구로는 한유경(2008)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재한 몽골 유학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재한 몽골 유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보여주었고, 유사하게 김귀성과 황지인(2009)은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한 학생들이 이질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다고 하였다. 대학적응은 아니지만, 이익수 (2009)도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이 학습동기 및 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문화적응 정도가 학습동기 및 학습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심리적·성격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배경 요인이다(최송미, 1999). 먼저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Mussen et al., 1980).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서 자신의 이전 성취 경험과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반영된 자아상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Rosenberg, 1965).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하는 대학생은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대학생활을 능동적으로 잘 적응해나갈 수 있으나, 낮은 자아존중감은 적응적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Bachman & O'Malley, 1983). 실제로 자아존중감은 대학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능력평가, 정서적 지지, 사회적 인정, 성취행위와 관련이 있기에 대학적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학업성취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성 및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박선영, 2003; 박은민, 2001; 이정희·정경연·유희정, 2007).

이와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요인(성별, 연령, 가정의 경제수준, 거주기간, 주거, 교육과정, 한국어 능력)도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인다. 실제로 재한 일본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을 살펴본 서선자의(2009)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찍이 유학생의 대학적응을 살펴본 Fong과 Hull(196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정희(2008), 손로(200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연령에 따른 대학적응에 관해서는 24세에서 26세 집단이 대학적응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황지인, 2008), 전반적인 한국문화적응과 관련하여서는 1985년 이후에 태어난 재한 중국 유학생이 1985년 이전 유학생보다 적응을 잘하고 있었다(손로, 2009).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가정의 경제수준은 전반적인 한국문화적응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이 낮은 유학생이 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며, 가정소득이 비교적 높은 유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로, 2009; 이재모, 2008).

거주기간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즉, 거주기간이 대학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장연, 2005; 한유경, 2008)가 있는가 하면, 적응 초기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다 차츰 시간이 경과

하면서 반작용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다 점진적으로 합리적 평가와 선택을 하게 된다는 Lysgaard (1995)의 문화적응의 흐름에 대한 U형 적응상태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거주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유학생이 7개월 이상인 장기유학생보다 대학적응을 더 잘하였으며(서선자, 2009), 거주기간이 1년과 6년인 유학생이 가장 대학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2년, 3년, 4년의 순으로 대학적응을 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재모, 2008).

한편, 거주형태에 따른 대학적응을 재한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한유경(2008)의 연구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유학생보다 대학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하게 이재모(2008)의 연구에서도 지방의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가장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언어연수생이 학부생보다 대학적응을 유의하게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선자, 2009).

한국어 능력도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 능력이 대학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연구가(황지인, 2008; Zou Zhendong, 2009) 있는가 하면, 한국어 능력이 하하(下)인 학생이 가장 적응을 잘하며, 상상(上)인 학생이 가장 적응을 못한다는 정반대의 결과도 있었다(이재모, 2008).

이처럼 개인배경 요인에 따른 대학적응의 연구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연구 대상의 특성(국적이나 교육과정, 거주기간, 현재 거주지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의 특성에 따른 좀 더 종합적이고, 정리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 소속감) 실태를 개인배경 변인과 개인심리적 변인,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거주기간, 주거, 교육과정, 한국어 능력)에 따라 대학적응 정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 심리적 변인(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대학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4년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언어연수생 포함) 346명(남학생 196명, 여학생 150명)이었다. 국적은 중국 304명(87.9%), 베트남 7명(2%), 몽골 4명(1.2%), 일본과 아프리카가 각각 2명(0.6%), 영국과 유럽이 각각 1명(0.3%), 기타 10명(2.9%)이었다. 거주 기간은 6개월까지 70명(27.2%), 6개월~1년 88명(34.2%), 1년~2년 62명(24.1%), 2년~3년 12명(4.7%), 3년 이상 25명(9.7%)로 대부분(85.6%)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재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은 어학연수생이 254명(73.4%), 학부생이 92명(26.6%)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206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은 98명(29%)이었다.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는 보통이 173명(51%), 못함이 134명(39.5%), 잘함이 32명(9.4%)이었다.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중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156명(5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상 114명(38.9%)이었으며, 하라고 대답한 학생은 23명(7.8%)으로 가장 작았다.

2. 연구도구

1) 대학적응척도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대학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Baker와 Siryk (1984)이 제작한 SACQ를 백지숙 등(1998)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SACQ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소속감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총 67문항 중 우리나라 대학문화와 맞지 않는 9문항이 제거되어 58문항으로 구성된다. 학업적응은 대학이 부여하는 교육적 요구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사회적응은 대학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정서적응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그와 관련된 신체화 증상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며, 대학소속감은 학생이 자신의 학교에 갖는 소속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학업적응은 Cronbach $\alpha=0.68$, 사회적응은 Cronbach $\alpha=0.79$, 정서적응은 Cronbach $\alpha=0.84$, 대학소속감은 Cronbach $\alpha=0.66$ 이었다. 선행연구에서 본 척도는 대학생의 부모애착(백지숙, 2000), 인터넷 게임동기유형(백지숙, 2005)과의 관계를 통해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노하나(2007)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이나, 본 척도는 3문항을 제외한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의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아존중감 척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10개 문항의 척도로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응답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며(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무수한 연구들이 이 척도의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주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4년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언어연수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대학의 유학생 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표집이 이루어졌다. 측정도구는 한국어판, 영어판, 중국어판의 세 가지 언어로 준비되어 배포되었으며, 가능한 대학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여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유학생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변인(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거주기간, 주거, 교육과정, 한국어능력)에 따른 대학적응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중다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적응(학업적응, 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소속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기위해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에 따른 대학적응

1) 성별에 따른 대학적응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에 따른 대학적응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대학적응의 네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대학적응

대학적응의 네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외국인 유학생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 참조). 일반적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을 상과 중이라고 지각하는 유학생은 하라고 지각하는 유학생보다 대학적응을 더 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응에서 그 차이는 대학적응의 다른 세 영역보다는 다소 낮았다(F= 2.66, p=.07).

3) 거주기간에 따른 대학적응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대학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참조).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다섯 가지 범주인 반년이하, 반년~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으로 분류되었다.

네 가지 대학적응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한국에 반년 이하 거주한 학생과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 대학적응을 가장 잘하고 있었으며, 1년~2년, 2년~3년 거주한 학생이 대학적응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4) 주거장소에 따른 대학적응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장소에 따른 대학적응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학교소속감에서 주거장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학적응을 가장 잘하고 있었으며, 기타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학적응이 가장 낮았다.

<표 1> 성별에 따른 대학적응

변 수	성 별	N	M	SD	t
학업적응	남자	196	58.02	7.26	-1.79
	여자	142	59.54	8.40	
사회적응	남자	196	27.27	3.78	-.28
	여자	142	27.39	3.76	
정서적응	남자	196	34.72	3.51	-1.87
	여자	142	36.06	3.47	
학교소속감	남자	196	26.21	3.56	-1.20
	여자	142	26.66	3.20	

<표 2>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대학적응

변 수	SES	N	M	SD	F	Duncan
학업적응	상	114	59.48	5.97	4.69**	a
	중	156	58.81	7.53		a
	하	23	54.09	8.30		b
사회적응	상	114	27.47	2.73	2.66 ⁺	a
	중	156	27.31	3.76		a
	하	23	25.48	4.11		b
정서적응	상	114	35.45	7.50	3.69*	a
	중	156	35.60	6.08		a
	하	23	31.70	6.90		b
학교소속감	상	114	26.55	2.69	5.36**	a
	중	156	26.47	3.36		a
	하	23	24.13	3.44		b

+p<.10 *p<.05, **p<.01

<표 3> 거주기간에 따른 대학적응

변 수	거주기간	N	M	SD	F	Duncan
학업적응	반년이하	70	61.09	6.01	9.74***	a
	반년~1년	88	56.41	7.69		b
	1년~2년	62	54.45	6.49		b
	2년~3년	12	54.42	8.57		b
	3년 이상	25	60.24	6.96		a
사회적응	반년이하	70	28.40	3.35	4.75**	a
	반년~1년	88	27.31	3.21		ab
	1년~2년	62	26.61	3.96		b
	2년~3년	12	26.06	3.73		b
	3년 이상	25	27.08	3.46		ab
정서적응	반년이하	70	36.29	5.75	3.44**	a
	반년~1년	88	33.67	6.51		ab
	1년~2년	62	33.29	7.25		ab
	2년~3년	12	31.08	7.51		b
	3년 이상	25	35.96	4.75		a
학교소속감	반년이하	70	27.19	3.01	4.54**	a
	반년~1년	88	25.95	3.29		ab
	1년~2년	62	24.74	3.78		b
	2년~3년	12	25.50	4.03		ab
	3년 이상	25	26.52	3.18		ab

*p<.05, **p<.01, ***p<.001

<표 4> 주거장소에 따른 대학적응

변 수	주 거	N	M	SD	F	Duncan
학업적응	기숙사	206	60.83	7.75	14.63***	a
	자 취	98	55.70	6.79		ab
	친구집	5	57.60	8.38		ab
	기 타	29	54.21	6.56		b
사회적응	기숙사	206	27.85	4.08	4.13**	a
	자 취	98	26.51	3.15		a
	친구집	5	27.60	2.19		a
	기 타	29	25.97	3.63		a
정서적응	기숙사	206	36.73	6.21	11.90***	a
	자 취	98	33.87	5.94		ab
	친구집	5	35.40	7.64		a
	기 타	29	30.24	6.61		b
학교소속감	기숙사	206	27.06	3.19	8.49***	a
	자 취	98	25.69	3.52		ab
	친구집	5	26.20	3.70		ab
	기 타	29	24.24	3.02		b

p<.01, *p<.001

<표 5>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적응

변 수	교육과정	N	M	SD	t
학업적응	어학연수	254	60.73	7.37	8.63***
	학 부	92	53.23	6.48	
사회적응	어학연수	254	27.94	3.83	5.36***
	학 부	92	25.52	3.34	
정서적응	어학연수	254	36.19	6.48	4.48***
	학 부	92	32.72	6.00	
학교소속감	어학연수	254	27.06	3.14	6.37***
	학 부	92	24.54	3.55	

***p<.001

<표 6> 한국어 능력에 따른 대학적응

변 수	한국어	N	M	SD	F	Duncan
학업적응	잘 함	32	54.09	5.97	6.57**	b
	보 통	173	58.81	7.53		a
	못 함	134	59.48	8.30		a
사회적응	잘 함	32	25.48	2.73	3.38*	b
	보 통	173	27.31	3.76		a
	못 함	134	27.47	4.11		a
정서적응	잘 함	32	31.70	7.50	5.93**	b
	보 통	173	35.60	6.08		a
	못 함	134	35.45	6.90		a
학교소속감	잘 함	32	24.13	2.69	5.61**	b
	보 통	173	26.47	3.36		a
	못 함	134	26.55	3.44		a

*p<.05, **p<.01

5)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적응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어학연수 과정에 있는 학생과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참조). 어학연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대학적응의 네 영역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적응점수를 보였다.

6) 한국어 능력에 따른 대학적응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못하거나 보통으로 평가한 학생들의 대학적응 점수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았으며, 잘한다고 평가한 학생들의 대학적응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6> 참조).

2.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 심리적 변인(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성별, 거주기간, 교육과정, 주거형태, 한국어 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심리적 변인(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중에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표 7>과 같다. 문화적응스트레스, 교육과정, 자아존중감, 주거형태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학업적응 전체 변량의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표 7>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업적응과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 델	학업적응	
	B	β
1단계	(상수) 72.44 문화적응스트레스 -6.51	 -44***
2단계	(상수) 71.70 문화적응스트레스 -5.50 교육과정(어학연수=0) -4.93	 -37*** -32***
3단계	(상수) 54.00 문화적응스트레스 -4.10 교육과정(어학연수=0) -4.68 자아존중감 5.02	 -28*** -30*** .24***
4단계	(상수) 52.65 문화적응스트레스 -3.87 교육과정(어학연수=0) -4.45 자아존중감 5.38 주거형태(기숙사=0) 기타 -3.43	 -26*** -28*** .26*** -13*
5단계	(상수) 52.46 문화적응스트레스 -3.56 교육과정(어학연수=0) -4.18 자아존중감 5.46 주거형태(기숙사=0) 기타 -4.38 자취 -2.25	 -24*** -27*** .26*** -17** -15*
	F	24.72***
	R ²	.37
	DW	1.65

*p<.05, **p<.01, ***p<.001

<표 8>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응과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 델	사회적응	
	B	β
1단계	(상수) 12.95 자아존중감 4.89	 .48***
2단계	(상수) 20.82 자아존중감 3.74 문화적응스트레스 -1.99	 .37*** -28***
3단계	(상수) 21.07 자아존중감 3.62 문화적응스트레스 -1.79 교육과정(어학연수=0) -1.16	 .36*** -25*** -15**
4단계	(상수) 19.62 자아존중감 3.92 문화적응스트레스 -1.69 교육과정(어학연수=0) -0.96 한국어 수준(잘함=0) 못함 .93	 .39*** -24*** -13* .13*
	F	26.80***
	R ²	.34
	DW	1.98

*p<.05, **p<.01, ***p<.001

<표 9>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서적응과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 델		정서적응	
		B	β
1단계	(상수)	48.89	
	문화적응스트레스	-6.27	-.48***
2단계	(상수)	48.74	
	문화적응스트레스	-6.00	.46***
	주거형태(기숙사=0) 기타	-5.52	-.24***
3단계	(상수)	39.04	
	문화적응스트레스	-5.19	-.40***
	주거형태(기숙사=0) 기타	-5.88	-.26***
	자아존중감	2.74	-.15*
F		31.71***	
R ²		.31	
DW		1.71	

*p<.05, ***p<.001

<표 10>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소속감 과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 델		학교소속감	
		B	β
1단계	(상수)	33.91	
	문화적응스트레스	-3.41	-.50***
2단계	(상수)	33.68	
	문화적응스트레스	-3.09	-.46***
	교육과정(어학연수=0)	-1.55	-.22***
3단계	(상수)	26.45	
	문화적응스트레스	-2.52	-.37***
	교육과정(어학연수=0)	-1.45	-.20***
	자아존중감	2.05	.21**
4단계	(상수)	25.79	
	문화적응스트레스	-2.41	-.36***
	교육과정(어학연수=0)	-1.34	-.19**
	자아존중감	2.23	.23***
	주거형태(기숙사=0) 기타	-1.67	-.14*
F		29.03***	
R ²		.34	
DW		1.64	

*p<.05, **p<.01, ***p<.001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업적응 점수가 높았으며, 교육과정이 어학연수 과정일 때 학업적응 점수가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적응 점수가 높았으며, 주거형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에 비해 기타와 자취를 할 때 학업적응 점수가 낮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표 8>과 같다.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교육과정, 한국어 수준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사회적응 전체 변량의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하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하였고, 어학연수생이 학부생보다 사회적응을 더 잘하였고, 한국어를 못한다고 응답했을 때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응답했을 때보다 사회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의 정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표 9>와 같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주거형태, 자아존중감이 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정서적응 전체 변량의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정서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며, 기숙사에 주거하는 것보다 주거형태가 기타일 때 정서적응이 낮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정서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소속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표 10>과 같다. 문화적응스트레스, 교육과정, 자아존중감, 주거형태가 학교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학교소속감 전체 변량의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소속감은 낮았으며, 교육과정이 어학연수 과정일 때 학교소속감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소속감이 높았으며, 주거형태가 기숙사보다 기타일 때 학교소속감이 더 낮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거주기간, 주거, 교육과정, 한국어 능력)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적응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학교소속감의 학위영역 모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정희(2008)와 손로(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 중 87.9%가 중국이 국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대학적응의 네 가지 학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상과 중이라고 지각하는 유학생이 하라고 지각한 유학생보다 대학적응을 더 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소득이 낮은 유학생이 가정소득이 비교적 높은 유학생들보다 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며(손로, 2009; 최송미, 1999),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개인생활, 학업생활 등의 여러 면에서 더 분발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학교생활에서 적응

을 잘 해나가며, 아르바이트 등의 일 경험을 통하여 언어문화에 대해서도 잘 적응해 나간다는 결과와 상반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재경 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서울에는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으며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기회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인다. 반면, 재경 유학생과 지방 유학생을 함께 살펴본 이재모(2008)의 연구에서는 “매우 가난하다”와 “매우 잘 산다”의 경우 대학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적은 지방 대학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인 유학생이 대학적응에 보다 유리하다고 보여 진다.

셋째,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한국에 반년 이하 거주한 학생과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 대학적응을 가장 잘하고 있었으며, 1년~2년, 2년~3년 거주한 학생이 대학적응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Lysgaard (1995)의 문화적응의 흐름에 대한 U형 적응상태를 보여주는 연구결과와 할 수 있다. 또한 Oberg (1960)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극복 과정 4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밀월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 위기단계보다 문화적응을 잘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넷째, 주거장소에 따라 대학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학적응을 가장 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대학의 경우 기숙사에 거주할 때 가장 대학적응을 잘한다는 이재모(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무래도 보다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유학생의 대학생활에 유리하다고 보인다.

다섯째, 어학연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대학적응의 네 영역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적응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학 연수생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한국어로 전공공부를 해야 하는 학부생보다 학업적응을 더 잘할 것이며, 비슷한 상황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이루어진 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은 한국에 거주하되 한국 사회 안에 아직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어학연수생의 사회적응, 정서적응, 학교소속감은 한국인 학생 사이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학부 학생들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예상과 달리,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못하거나 보통으로 평가한 학생들은 한국어를 잘한다고 평가한 학생들보다 대학적응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적응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능력이 하하(下下)인 학생이 가장 대학적응을 잘하며, 상상(上上)인 학생이 가장 대학적응을 못한다는(이재모, 2008)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마도 자신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지각하는 학생은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부담으로 다가와 전반적인 대학적응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한국어 능력에 바탕

을 둔 것이기에 TOPIK 점수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추후에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일곱째,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성별, 거주기간, 교육과정, 주거형태, 한국어 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 교육과정, 자아존중감, 주거형태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업적응 점수가 높았으며, 교육과정이 어학연수 과정일 때 학업적응 점수가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적응 점수가 높았고, 주거형태는 기숙사에 거주할 때보다 기타와 자취를 할 때 학업적응 점수가 낮았다.

여덟째,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교육과정, 한국어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하였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응을 잘하였고, 어학연수생이 학부생보다 사회적응을 더 잘하였고, 한국어를 못한다고 응답했을 때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응답했을 때보다 사회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외국인 유학생의 정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주거형태, 자아존중감이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정서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며, 기숙사에 주거하는 것보다 주거형태가 기타일 때 정서적응을 잘하지 못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정서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열번째,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소속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 교육과정, 자아존중감, 주거형태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소속감은 낮았으며, 교육과정이 어학연수 과정일 때 학부에서 공부할 때보다 학교소속감이 더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소속감이 높았으며, 주거형태가 기숙사보다 기타일 때 학교소속감이 더 낮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정서적응, 학교소속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의 언어, 관습과 문화의 가치에 관해 알고 능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안에 내포된 의미를 배우고, 새로운 체계의 가치에 재적응하며 자국의 문화적 관습과 신념체계 및 행동이 아닌 새로운 한국 문화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타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은 우리사회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배려나 노력체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이며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이러한 문화적 문제로 인해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응과 관련하여서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는 Rosenberg(1965)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환경을 탐색하며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및 불안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며 고립되어 있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의 사회적응은 내적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배경 변인에서 교육과정은 학업적응, 사회적응, 학교소속감에서 중요한 변인이었다. 학부생은 어학연수생보다 이들 세 영역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각 대학에서 어학연수생의 관리는 학교 차원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전공학과로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는 학교 차원에서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부 유학생의 대학적응을 위해 튜터 제도나 버디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에의 소속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학업적응, 정서적응 그리고 학교소속감에서 주거형태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이들 영역에서 적응을 가장 잘하고 있었다. 이는 기숙사가 대학적응에 가장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숙사에서 나와 자취를 하는 학생들은 기숙사비를 절약하기 위한 학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일 수 있으며 기숙사에서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기숙사를 퇴소하여 자취를 하게 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에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전라남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기에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목적과 상황이 진학한 대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대상의 87.9%는 중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고 나머지 12.1%의 학생만이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주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에 그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혹은 단기간 종단연구도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참 고 문 헌】

- 공영태(2005).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예비교육에 관한 관찰. *일본학보*, 62, 267-282.
- 김귀성·황지인(2009).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 29, 1-25.
- 김규원(1995). 국제화시대와 한국인의 대외양식. *성곡논총*, 26, 985-1021.
- 김재우(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노유성(2004).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종희·이일용·유길한(200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국가별, 지역별 대학마케팅 전략.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논문*.
- 박선영(2003).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민(2001). 대학생활적응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숙·도현심·박선영(1998).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적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89-102.
- 서선자(2009). 재한 일본인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로(2009). 재한 중국인 유학생 한국문화 적응 실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성원(2001). 주한 외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중(1995). 문화이입과정·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 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익수(2009).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이 학습동기 및 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상논총*, 2(1), 1-13.
- 이인선(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모(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8). 재한 중국유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파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정경연·유희정(2007). 세대간 가족관계와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5), 407-429.
- 이혜연(2007). 중국유학생들의 학업자존감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진·한규석(2009).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413-427.
- 장연(2005).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숙달 수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혁심(2005).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송미(1999). 한·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정신 건강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한유경(2008). 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재한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승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춘영(1998).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실태: 한족, 조선족 유학생간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지인(2008).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연(2007).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chman, J. G., & O'Malley, P. M. (1983). Self-esteem in young men: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57-268.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Fong, S. & Hull, P. (1969). Sex role strain and personality adjustment of Chinese-born students in Americ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4, 563-568.
- Kagan, H., & Cohen, J. (1990). Cultural adjust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logical Science*, 1(2), 133-137.
- Lysgaard, S. (1965). Adjustment in a foreign society: Norwegian Fulbright grantees visiting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7, 45-51.
- Mallinckrodt, B. & Leong, F. T. L. (1992).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71-78.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198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Y.: Harper & Row.
-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Prieto, S. (1997).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s and needs assessment. In S. Sabb, S. Harris, & J. Talley (Eds.), *Multicultural needs assessment f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s* (pp.203-223).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 632-641.
- Wang, Y. (2004). Pursing cross-cultural graduate education: a multifaced investigation. *International Education*, 33(1), 52-72.
- Zou Zhendong. (2009). 부산지역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접수일 : 2011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11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6월 20일